

판 커진 재보선 두달 앞으로... 여야 승리전략 부상

“인물·정책 승부” VS “민생난 MB 심판”

4·27 재보선의 판이 애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여야가 승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말 강원지사, 순천, 경남 김해에 이어 24일 대법원 판결로 서울 중구, 화순, 강원 양양 등 기초단체장 선거가 추가되면서 전국 단위 선거로 규모가 확대됐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27일 “재보선 판이 커지면 여당으로서는 분위기상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하나하나의 선거가 모두 만만치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당 핵심관계자는 “선거 규모가 커지면서 정권 심판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며 “반(反)MB 민생” 전선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최대 승부처로 평가된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국민참여경

순천, 민주 출신 무소속-野 단일 후보 대결 될 듯 강원, MBC사장 출신 맞대결 가능성... 최대 승부처

선으로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최석의 후보로 여기는 한승수 전 총리가 출마를 고사하고 있는 가운데 엄기영 전 MBC사장,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 최병희 강릉시장, 최홍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어 경선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MBC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전락공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일현 전 의원, 이근식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놓고 있어 경선을 치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성남 분당=한나라당에서는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이 지난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일찌감치 표밭갈이에 들어갔으나 전 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물로 승부

진 변호사, 김윤현 은누리 청소년 수련원장, 박진업 전 국제청 차장 등이 대결하는 당내 경선을 통해 자당 후보 인지도를 끌어올린 후 국민참여당 이봉수 예비후보와 단일화하는 시나리오를 짜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민주당이 야권연대 차원에서 다른 야당의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밀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모두 인정할 만한 시민사회계의 대표 주자를 영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에서는 현재까지 도전 의사를 가진 후보가 나오지 않는 등 인물난이 심각하다. 따라서 민주당을 탈당할 무소속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가 일전을 벌이는 선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덧붙 순천 양보 ‘호남당’ 탈피 시동

재보선서 또 ‘시험대’ 오른 孫 리더십

연일 ‘정권 심판론’ 제기 선거 결과따라 입지 좌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미니 총선’ 성격을 띠고 있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리더십의 ‘시험대’에 섰다.

지난 10월 대표 취임 이후, 손 대표는 당내 화합에 방점을 두면서 연착륙에 나섰는데 성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3년 연속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는 이후 장외 투쟁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다시 등원

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에 따라 손 대표가 이번 재보선에 승리할 수 없을지라도 정치적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세대를란과 규제역 파동 등 여권에 대한 바닥 민심이 최악인 상태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최대 요인으로 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 연대를 염두에 두고 ‘순천 양보론’을 내세운 손 대표의 재보선 전략이 실패할 경우, 차기 대선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호남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이고 민

주당 전반에서 ‘손학규 책임론’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손 대표는 과단성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 판도가 결코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손 대표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심각한 후보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보선에서의 완패 가능성마저 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순천에서 야권연대에 의해

뺀 후보가 무소속에 패할 경우, 손 대표는 ‘산토끼는 물론 집토끼까지 잃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연일 공식 석상에서 ‘정권심판론’을 외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후보난을 해결할 묘수를 찾아내기까지는 바닥 민심을 다지며 규제역 파동 등으로 조성된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손 대표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경남 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의 승리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정세는 유리하지만 필승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하다”며 “이번 재보선은 손 대표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과학벨트·친수법 대치 전문 고조

이번주 3월 국회 개회

여야는 이번주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2월 27일 임시국회를 폐회한 뒤 3월 3일 3월 임시국회(3월3일~12일)를 소집한다. 3월 임시국회는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의교통상통일위와 정부위, 정보위에서 각각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저축은행 사태, 국가정보원 요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축소 잠입 사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6개 법안에 대

한 민주당의 폐지·수정 요구에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입법대치’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7일 “상임위가 열리면 민생부분을 중점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한-EU FTA 비준안과 예금자보호법의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영 원내대표는 “이번 상임위에서는 규제역과 물가·전세대란, 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축소 잠입 사건, 한상환 전 국제청장 의혹 등을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대외 공세를 예고했다.

외통위의 경우 여야가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

안을 상징키로 합의했으나, 처리시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정부위는 지난 23일에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으로 비화된 저축은행 사태를 논의하지만, 사후 대책에 대한 여야간 해법이 달라 접점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정보위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파상공세 속에 야당 의원들의 원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밖에 환경노동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로부터 규제역 가축매몰지 침출수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환경오염 논란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생법안 처리 머리 맞댄 여야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여야 정책위 지도부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시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학부모 46% “MB 집권후 공정성 후퇴”

이용섭 의원 여론조사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음에도 학부모의 절반 가까이 MB정권 출범 후 우리사회의 공정성이 후퇴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음에도 학부모의 절반 가까이 MB정권 출범 후 우리사회의 공정성이 후퇴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7일 여론조사기관 ‘원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MB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응답은 45.9%, ‘비슷하다’는 응답은 37.7%로 조사됐다.

‘과거 정부에 비해 MB정부의 신뢰도 하락했다’는 응답도 56.5%로

과반을 넘겼고, ‘비슷하다’ 32.6%, ‘상승했다’는 8.4%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피해를 정적·신뢰·정의·청렴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황폐화’라며 “인사의 불공정성, 퇴물어되는 말 바꾸기,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밀어붙이기 등 공정성과 신뢰도가 낮은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비지원/일반인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청소 및 건축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청소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소독용역
소독 및 비취벌레·개미·해충 박멸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레스토랑, 영화,연극,공연, 일반홍보용 어플 제작, 골프 예약, 카페, 중고차판매